

중국의 ‘모나리자’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

글 신인섭 |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
1929insshin@naver.com



중국 본토와 대만 모두가 최고의 국보로서 아끼는 작품이 청명상하도이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2007년에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를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밖인 홍콩에서 전시했다. 수많은 외국 언론사 가운데 뉴욕타임즈 기자도 있었다.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중국의 모나리자 매우 드물게 홍콩에 나타남’이라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중국의 Mona Lisa란 말이 생겼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모조작품이 많듯이 청명상하도의 습작(모조품) 역시 많다 한다. 역대 중국의 화가

지방생은 모두 이 그림을 본따서 공부를 했다. 원작은 북송(960-1127) 시대 화가인 장택단(張擇端)이 그렸는데 지금 북경 고궁에 소장되어 있다. 원작의 크기는 가로 세로 525cm×25.5cm이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 이 그림에는 사람 814명, 선박 28척, 동물 60마리, 건축물 30동, 우마차 20대, 가마 8개, 나무 170그루가 그려져 있다 한다.

역대 왕도 이 그림을 좋아해 본인이 통치하는 시대 상황에 알맞게 그림을 개작(Remake)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이름 난 작품이 청나라 6대 황제인 건륭(乾隆)의 1736년 즉위를 기념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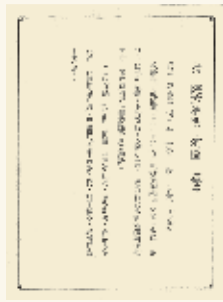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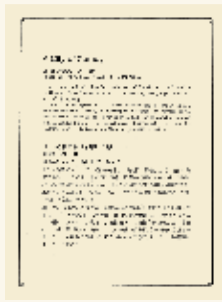
장택단(張擇端)이 그린 그림으로 525cm x 25.5cm의 두루마기의 형태이다. 중국 북송 시대 수도였던 카이펑의 청명절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에서는 북송의 발달한 경제 상황과 수공업, 해상 무역 등에 관해 알 수 있다.

5명의 화가가 그린 작품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널리 알려졌다.

개작한 그림의 크기는 원본보다 훨씬 큰데 가로 11.5m에 세로 35.6cm의 비단에 그렸다. 북송의 수도 변경(汴京, 현재 하남성 개봉)의 강, 교외, 다리, 성문, 시가와 상점 등의 여러 모습의 그림이다. 수 많은 사람, 각종 건축물, 교량, 선박, 상점, 수레, 가마 등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너무도 자상하게 묘사되어 있다. 너무도 유명한 청명상하도의 여러 작품은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청명상하도는 한국의 문화재로 중앙박

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와 일본의 옛 수도 교토(京都)의 모습을 그린 보물 낙중낙외도(洛中洛外圖)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다.

이 그림이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흥미를 끄는 것은 그림 가운데 많은 각종 광고물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광고의 수는 아직 중국에서조차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사실 정확하게 광고의 수를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작가에 따라 그림 내용이 다르며 광고의 수와 구분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지면 이기는 하나 몇 가지 그림에서 1,000년 전 북송의 수



- 1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된 설명서. 청 원본청명상하도(清院本清明上河圖) 제호(우측 그림) 및 건륭황제기 하사한 칭송의 글 너 자
- 2 '중국의 모나리자'란 New York Times 2007년 7월 3일 기사 제목
- 3 성문
- 4 강변의 상점과 두 깃발

도 변경의 그림을 본 따서 만든 1736년 청나라 건륭황제 때 그림 두루마리를 통해 보기로 한다.

두루마리에는 이 청명상하도의 크기, 작가 5명의 이름, 제작 연도 등과 함께 그림 설명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쓴 자료가 있다. 그림 첫장에는 제목과 건륭황제의 칭찬하는 말을 받아 쓴 글과 하사한 제목 너 자(회원경요. 繪苑璠璠)가 있는데 아름다운 회화 작품이라는 뜻이다.(그림 1, 2 참조)

북송 시대 수도이던 변경의 성문은 웅장한 건물과 입구에는 오가는 사람, 짐꾼들로 붐비고 성내에는 손수레, 지게꾼과 사람 등으로 분주하다. 또한 큰 길과 큰 나무 옆에는 상점인 듯한 집에 육안으로도 글자가 보이는 처마 밑 간판과 커다란 입간판이 보인다.(그림 3 참조)

강가의 정박한 배와 다리 그리고 상점에는 커다란 깃발 대 두 개와 간판 두 개가 있고 그 맞은 편에는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지 많은 군중이 모여 있다.(그림 4 참조)

강을 건너 시내와 연결하는 대형 아치형 다리는 양쪽에 모두 상점이 웅기중기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에 스무 개가 넘는 점포가 즐비하다. 사람과 상점이 보이는 왼쪽 줄 가게 앞에는 입간판인 듯한 것이 더러 보이며 짐을 실은 수레와 복적거리는 장터 같은 광경이다. 상점에는 모두 차양이 있어서 상점 앞에 각종 광고가 있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그림 5 참조)

시내 광장 같은 대로와 오른쪽 상가에는 상점이 셋 있는데 모두 글자가 보이는 간판이 있으며 왼쪽 상점 앞에는 처마 밑 간판과 큰 입간판이 보인다. 길 건너



- 5 다리
- 6 대로와 상점
- 7 세계 4대 문명 지도

편 문이 있는 곳에는 크고 작은 입간판이 셋이나 있다. 입간판 두 개는 육안으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선명하다.(그림 6 참조)

세계 4대 문명의 광고와 관련된 자료는 산재해 있으나 한 권의 책으로 발표한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그림 7 참조)

중국 광고는 기원전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광고사의 입장에서 청명상하도는 황하문명을 대표하는 광고일 수도 있는데 수많은 각종 광고물이 선명히 그려진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비록 이 작품에 나오는 광고물이 실물은 아닐지는 몰라도 터무니 없이 상상한 그림은 아니고 사실의 묘사일 것이다. 장택단이 처음으로 청명상하도를 제작한 연대는 112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기 79년의 비수비어스 화산 폭발로

묻혀 있던 폼페이 유적에서 여러 가지 옥외 광고물이 발굴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광고사에 12세기 초에 청명상하도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다수의 각종 옥외광고물이 나왔다는 연구는 아직 없다. 물론 그림이지 실물이 아니라는 흠은 있지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세계 광고사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



신인섭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세대 광고인으로 국내 광고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기여했다. 은퇴 후 20여 년간 다수의 논문·저서 집필과 광고계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